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대학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학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대개 그 대학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한 것이 주종이다. 그런데 고려대의 학교소개란에 들어가면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다. 역대 총장의 사진과 프로필이 그것이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분들의 면면을 일별하면 고려대가 왜 유독 역대 총장을 소개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 가운데는 걸출한 분들이 유난히 많다.

초대 총장을 맡은 현상운 선생은 3·1 운동의 민족대표 48인의 한 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2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가 쓴 '조선유학사'는 유학(儒學)은 물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저의 하나로 꼽힌다. 그가 전쟁 통에 납북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총장에 이어 고려대를 이끈 분이 유진오 총장이다. 유 총장은 두루 알듯이 우리나라 헌법을 기초한 학자다. 그는 고려대 총장일 뿐만 아니라 당

대 지성인의 대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총장은 총장직을 세 번 연임하면서 법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학을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9대 총장을 맡은 김준엽 총장은 고려대가 내실을 갖춘 대학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데 이바지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복군에 투신한 경력이 있는 그는 고려대 교수가 되어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구소로 우뚝 서게 한 뒤 총장을 맡았다.

그는 법인 관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석에서 고려대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나 김씨 일문의 대학이 아니라 민족의 대학이라고 거칠없이 말하곤 했다. 법인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

일을 맡았다. 김상협 총장은 총장을 맡기 전에 문교부장관을 지내는가 하면 전두환 시대에는 국무총리가 되었다. 유진오, 김상협 두 분의 혼란참여가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이 이어질 때 김준엽 총장은 뭘로 그 답을 제시해 지성인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여러 정권의 총리직 제의를 일언지하에 다 거절했다. 참말인지 과장인지 모르지만 총리를 맡아달라고 하자 김 총장이 "고려대 총장을 지낸 내가 어찌 더 아래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는 말은 교수사회의 전설이 된지 오래다.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 고려대 총장을 지낸 분들의 처신이 사뭇 달라졌다. 누가 보더라도 고려대 총장의 지위나 상징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리에 나가는가 하면, 이서를 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이도 있더니, 최근에는 직접 총장이 교우회 회장 선거에 나서 후배에게 고배를 마시는 일도 벌어졌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사 주필이 '참파하구나 고려대 교우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 교우회뿐인가. 요즘은 고려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다. <고려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 총장

전통을 세웠다.

6대와 8대 총장을 맡은 김상협 선생도 당대의 대인이다. 군자였다. 모택동 연구나 정치사상 연구의 권위자였던 그의 강의는 최고의 명강(名講)이었다. 그는 고려대에 내린 헌교령이 해제되자 학생들이 가득 모인 강당으로 그 군부를 향해 "하늘에 들어봅시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하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해 학생들을 울렸다. 그는 한동안 군부나 이른바 3김을 대신해 나라를 이끌 대안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면서도, 그는 교수들을 누구보다 존중했다. 교수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으면 그는 교수를 총장실이나 음식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곤 했다고 들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출중하고 능력도 타당한 분이 많아 고려대 총장 가운데는 총장직을 마친 뒤 대학 밖으로 나가 활동한 분이 적지 않다. 유진오 총장은 박정희 시대에 야당의 초기계적 부름에 응해 신민당 당수를 지내며 군사독재를 견제하는

원이 학을 흥보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학사량은 공정하지 못한 지원과 강요를 초래하고 결과는 지금 후쿠시마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일반도의 에너지정책과 시스템의 실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국성스런 걱정과 공포는 단지 지금 당장의 후쿠시마사고와 방사능의 유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21기의 핵발전소와 정부가 고수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핵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의 책무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학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경제적 가치 등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국성스러워지지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도 필요합니다. 역사나 국성스럽게, 지금 당장!!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NGO 칼럼



박상은

지금 당장! 국성스러워지자

읍절을 세심하게 불여 정정해보자면 "지금 당장 미미하다", "지금 당장 안전하다", "지금 당장 영향없다"입니다. "지금 당장"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부의 발표가 한결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책임 있게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이란 4읍절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이 미미하고, 지금 당장 책임져야 할 상황이 없어서, 혹은 에너지정책과 시스템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바다 건너 핵 구경'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과 대응 또한 미미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후쿠시마사고와 방사능의 위험과 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제 시민 스스로의 몫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조금 깊숙하게 표현해보자면 '급사(急死)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다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료 중 3.7%가 전력 사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고 연간 약 100억

가 나타날 수년 내지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공포를 국가전복, 사회불안 조장 등을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방사능의 위험과 영향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의무를 반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온 말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한 철부지들(?)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국성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성스러움을 색칠하고 있는 일부의 국성스러움이 후쿠시마사고에 대한 대응과 잘못된 학사량(?)에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에 대한 잘못된 사랑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막가파적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료 중 3.7%가 전력 사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되고 연간 약 100억

한 꿈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한다. 꿈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공부만 하게 된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게 하자. 요즘 학생들은 일찍부터 점수에 얹어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다 보니 적성과 흥미를 생각해 볼 여유도 없다.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는 학생에 대하여도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제 시대가 변해 학교를 졸업하고 45년 동안 직업 활동을 하여야 하는 시대다. 또 이 사이에 평균 8차례가량 직업을 이동하고, 그중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3차례 정도로 추정되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자기학습 태도이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나라의 미래도 약속하기 어렵다. <광양여중 교장>

그러나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형식적인 덮개를 처리가 차지 대형사고의 주원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히 덮개를 덮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영신·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고



김광식

왜 공부하는가를 깨닫게 해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상당수의 아이들은 날마다 잣빛 얼굴을 하고 학교에 가거나 밤마다 돈을 뿌리며 학원가를 전전하기도 한다. 웃음 많은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서움에 전염되어 마구 달리고 있고, 그들과 나란히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부모님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보니 학력은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부모의 욕심과 대리만족심으로 아이에게 지나치게 학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는지?

실제로 학생들이 과거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가보면 공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고교생들이 '적당히 하면 어떤 등급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 학생들처럼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등

학부모나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는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주문을 자주 한다. 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능률이 오른다.

공자는 쓴 논어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가 즐겁지 아니하고, 자녀 공부 때문에 집안이 즐겁지 아니

어려운 공부는 기피하려고 한다.

공부는 왜 하여야 하는가?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는 학습 내용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지만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에서 영어단어 1개와 수학공식을 배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선 교육현장의 관리자와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 꿈을 갖고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게 하자.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고교생 10명 중 4명이 아직 자신의 미래에 대

미리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영신·광주시 북구 운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덤프트럭 덮개 관리 엄망... 교통사고 위험 커

건축현장에서 건축골재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도로를 누비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덤프트럭 덮개가 형식적이어서 교통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을 떠안고 있다.

덤프트럭에서 골재 등 이물질이 뛰어 운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다리를 지날 때 덤프트럭과 함께 흙이 쏟아져 후속 차량의 앞유리로 터ing기도 한다.

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도 향상 뒤따른다.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경찰관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계식으로 돋고 있는 개폐장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하고 있다.

매 번 손으로 덮지 않아도 돋고 편리하지만 큰 위험이 뒤따른다. 운행 중에 모래와 자갈 등이 적재함과 덮개 사이로 빠져나와 도로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덮개를 덮지 않고 운전하거나 설사 덮개를 덮었더라도 모래나 자갈 또는 물 등을 도로에 흘리면 도로교통법 제35조 3항에 따라 범칙금을 물리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시설

우정센터 착공 혁신도시 본격화 계기돼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25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우정센터의 착공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혁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혁신도시가 일부에서 우편하는 건물만 들어서고 사람들은 없는 유령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자족형 도시가 돼야 한다.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 가족이 모두 옮겨와도 아무 런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나주혁신도시는 내년 말까지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32만7천㎡에 1조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2만 가구, 5만여 명이 산주하는 자족형 도시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우정센터를 비롯해 한전 등 15개 공공기관이 옮겨 온다.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은 여수로 옮기는 혜양경찰학교를 제외하고 6천700여 명이 한 해 예산만 해도 총 37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대상기관의 관련 기업이나 산업체의 연세 이전 등을 감안하면 그 과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셈이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제자리를 잡기 위

어의 유지 여부 역시 현재로선 정답할 수 없다. 유스퀘어는 금호가 지난 2006년 400억 원을 투자해 여객운송시설이라는 기준의 틀을 뛰어 넘어 문화와 쇼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인수기업에 따라 언제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상실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일한 그룹인 금호의 모태이자 지역민의 애환이 서린 터미널의 주인이 바뀐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는 이번 대한통운의 매각이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가능하다면 예비입찰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그룹이 인수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터미널을 폐지하거나 더 이상 신규 시설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유보다는 기업논리만 내세울 경우 점포 임대료나 매입 수수료 인상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온 유스퀘어는 그룹을 뒤로하고 대한통운을 통해 다시 한 번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물론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유일한 그룹인 유스퀘어의 존립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카터의 명성은 퇴임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카터재단'을 만들고 지구상의 중대 분쟁 조정자로 '국제 대통령'의 역할을 맡아 해외에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4년에는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적인 영광을 안았다.

카터는 1924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출생한 카터는 조지아공대를 졸업한 후 해군에서 잠시 근무하다 1953년부터 가입인 땅콩농장을 일구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한 그는 주로 흑인 등에게 고용을 주고자 노력했고 행정기